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태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선시대 주전자의 조형적 특징을 이용한  
백자 다관 제작 연구

2020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손세은

조선시대 주전자의 조형적 특징을 이용한  
백자 다관 제작 연구

박태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손세은

# 인 준 서

손세은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다관(茶罐)은 다기용 주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서 사전적 의미로는 차를 끓여 담는 그릇으로 사기, 놋쇠, 은을 소재로 만든 것을 말한다. 조선의 사대부들은 각종 다례와 외교행사, 제례에서 격식을 갖추어 행하는 것을 중요시하였기에 이에 걸맞은 격조 높은 다관들이 제작되었다. 이와 같이 다관은 차 도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었으며 다양한 소재와 형태적 특징으로 인하여 독특한 조형적 미감이 내재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다관의 조형적 특징에 착목하여 다관의 형태, 즉 주전자의 형상적 특징을 파악한 후 오늘날 우리의 차 문화에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부여함으로써 최근 증가하고 있는 차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차 도구의 제작과 더불어 차 문화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론에서 조선시대 차 문화 양상을 사찰과 왕실, 문인 중심으로 살펴보고 당시 국제 흐름을 같이했던 중국을 중심으로 음다법(飲茶法)과 주전자의 변천 과정을 정리하였다. 또한 차 문화 양상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다화와 책거리를 바탕으로 조선회화 속에서 등장하는 주전자를 사용성 중심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조선시대 백자로 제작된 주전자에 대해서는 손잡이의 위치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여 도표로 작성하였으며 조형적 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주전자의 조형적 특징을 구체적인 언어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조형적 미감을 담아 백자 다관 제작에 적용하였다.

제작된 백자 다관을 중심으로 차 도구의 조합을 시도하여 최근 차 문화의 새로운 소비자로 대두되고 있는 젊은 층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차 도구를 제시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동기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II. 본론 .....	3
1. 조선시대 차 문화의 양상 .....	3
2. 중국의 음다법 및 다관의 특징 .....	5
3. 조선회화에서 보이는 주전자 .....	8
4. 조선시대 다관의 유물 유형 분류 .....	13
5. 조선시대 주전자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 .....	18
6. 제작과정 .....	22
7. 시작품 .....	26
III. 결론 .....	39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1】 중국의 다관 변천사 .....	7
【표 2】 조선의 다화(부분)에서 나타나는 주전자 형태 고찰 .....	9
【표 3】 조선의 책가도(부분)에서 나타나는 주전자 형태 고찰 .....	11
【표 4】 조선시대 주전자 유물 유형 상과형 .....	14
【표 5】 조선시대 주전자 유물 유형 후과형 .....	16
【표 6】 조선시대 주전자 유물 유형 횡과형 .....	18
【표 7】 석고 몰드 제작 과정 .....	24
【표 8】 금속 손잡이 제작 방법 .....	25

## 그림 목 차

【그림 1】 은봉병, 조선, 헌종효현왕후 가례도감의궤 (하) .....	4
【그림 2】 청화백자망우대잔받침,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18
【그림 3】 백자주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20
【그림 4】 김근태, 담론(부분), 2018, Mixed media on canvas .....	22
【그림 5】 은다관, 조선, 진찬의궤 .....	26
【그림 6】 백자주전자,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	27
【그림 7】 백자청채유개주자, 조선, 아모레퍼시픽 .....	28
【그림 8】 은다관, 조선, 진찬의궤 .....	30
【그림 9】 백자주자, 조선, 호림박물관 .....	32
【그림 10】 은제주전자,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	32
【그림 11】 백자주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33
【그림 12】 백자주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34
【그림 13】 백자양각매화무늬주전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35
【그림 14】 오지주전자, 조선, 향토대백과 .....	36
【그림 15】 백자청화매화국화무늬주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37
【그림 16】 백자주자, 조선, 서울역사박물관 .....	37
【그림 17】 백자청화칠보문주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38

## 시 작품 목 차

【작품 1】 물 끓는 소리 .....	26
【작품 2】 새벽 1시 .....	27
【작품 3】 화단의 나뭇가지 .....	28
【작품 4】 메모장 .....	29
【작품 5】 사진첩 .....	30
【작품 6】 현관문 열쇠 .....	31
【작품 7】 초여름 집 앞의 장미 넝쿨 .....	32
【작품 8】 골목 사이사이 .....	33
【작품 9】 우연히 집어 든 시집 .....	34
【작품 10】 길목에서 올려다 본 하늘 .....	35
【작품 11】 오래된 나무 책상 .....	36
【작품 12】 버스 뒷자석 .....	37
【작품 13】 낡은 찻장 위의 바다 .....	38

# I. 서론

## 1. 연구동기 및 목적

최근 차(茶)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찻집과 차 도구 상점과 같은 다양한 차 문화 공간이 온라인과 실제 공간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차와 관련된 전시들이 꾸준히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차를 마시며 차에 대해 배우는 차 문화 강좌들도 늘고 있으며 웰빙과 관련된 사회적 분위기와 더불어 젊은 층의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차 문화의 유행은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발전해온 커피문화에서 보이듯 다양한 차 도구 시장의 확대로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차 도구에 있어서 도자기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근대의 암울한 역사로 인한 우리 고유의 차 문화의 단절과 연구 부재로 인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구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과 더불어 차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지만 우리만의 차 문화의 부재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자사호와 일본의 이도다완, 영국의 홍차 티팟은 각 나라 특유의 차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성은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차 문화의 단절과 부재로 인해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차 도구들 중 중국과 일본의 제품들이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기에 우리 고유의 문화와 현재 우리의 생활상을 반영한 차 도구의 보급이 절실한 상황이라 하겠다.

우리 고유의 차 문화는 주지의 사실과 같이 고려시대 불교문화의 성립과 더불어 발달한 차 문화와 조선시대 궁중다례를 중심으로 한 차 문화를 들 수 있는데 특히 조선시대 후기에서 보이는 다관은 용도 면에서나 조형적 특징에 있

어서 우리 차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차 도구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고유의 차 문화의 계승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차 도구의 제안에 있어 조선시대의 다관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과 제작방법을 바탕으로 현재 차 문화의 새로운 소비자로 대두되고 있는 젊은 층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차 도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차 도구의 경우 차를 끓이고 마시는데 필요한 일체의 도구가 세트로 구성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차 도구 중 다관 즉 찻주전자를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과 작품제작으로 진행하였다.

차 문화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차 문화를 중심으로 중국의 음다법(飲茶法)에 대해 정리하였으며 조선백자의 미감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주전자의 제작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서 본론 1장에서는 조선시대 차 문화의 주요 소비층인 사찰과 왕실, 문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차 문화 흐름을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의 음다법과 다관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조선시대 풍속화와 책거리에서 나타나는 주전자의 형태적 특징과 음다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조선시대 백자로 제작된 주전자를 대상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도표화시켰다. 5장에서는 조선시대 주전자에서 보이는 조형적 미감을 구체적 언어로 정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작하는 주전자의 조형표현의 요소로 삼았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조선시대의 차 문화와 백자의 미감을 바탕으로 다관제작을 시도하였다.

## II. 본 론

### 1. 조선시대 차 문화의 양상

조선시대의 차 문화는 일반적으로 고려시대에 비해 정치적, 사회적 배경으로 인하여 쇠퇴하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나 조선왕조의 궁중다례 문화에서 볼 수 있듯이 분명 조선 나름의 차 문화는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조선의 차 문화에 있어서 주요 소비층이었던 왕실, 사찰, 문인으로 나누어 차 문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조선과 중국의 음다법(飲茶法)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의 차 문화는 송유억불(崇儒抑佛)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쇠퇴하다가 후기에 이르러 번성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초기에는 불교의 억제정책에 의해 사찰 주변의 차밭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졌으며 특히 15세기경 한반도에 찾아온 소빙기 등의 기후변화로 인하여 차의 생산량도 감소하게 되었다.<sup>1)</sup> 또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사회적 혼란 가중되어 차의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왕실에서는 차를 신하에게 하사하거나 청으로 공납해야 하는 수요는 늘었지만 공급이 줄게 됨으로써<sup>2)</sup> 이로 인한 과중한 차세(茶稅) 등으로 인해 차 문화는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실의 경우 궁중에서 공식적인 행사에 음다(飲茶)가 하나의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외에 일부 문인들에 의해 차 문화가 명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왕실에서 외부 사신이 조선을 방문하면 차를 대접하는 접빈다례(接賓茶禮)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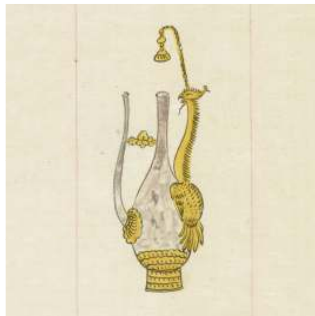
1) 조선시대의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흉작이 차 소비를 감소 시킨 것으로 보인다. 김재섭, 「朝鮮時代 茶 生産과 消費에 관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9, p.99.

2) 조선시대 공납하던 차는 제작 시기상 차잎이 작게 자랄 수밖에 없어 공납을 채우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의 논문, p.117.

행하였다. 접빈다례는 전기에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절차의 일부분이었다. 후기로 갈수록 접빈다례가 점차 중요시되었다.<sup>3)</sup> 또한 조선후기 영조의 금주령으로 인해 진연의례(進宴儀禮)에 술 대신 차를 진상하게 됨으로써 차 문화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외교, 제사, 향연 등의 다례에 음악이 사용되는 등 조선의 차 문화는 하나의 독립된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찰에서는 대홍사의 승려였던 초의선사(草衣禪師)에 의해 다법(茶法)을 재정립하여 조선의 차 품질 향상을 이루게 된다. 초의선사의 저서 『동다송(東茶頌)』은 차에 대한 효능과 산지에 따른 품질을 다루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차 만드는 방법을 비교하여 우리나라 차의 우수성에 대해 기록한 최초의 차 관련 저서이다. 또한 그의 저서 『다신전(茶神傳)』에서는 다도(茶道)와 국산 차의 채집과 차 마시는 방법 등 차 생활에 관련한 이론을 기록하여 우리 차의 풍습을 이어나갔다. 『동다송』과 『다신전』은 당시 초의선사가 조선의 차 문화 정립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문인에 의한 차 문화의 계승은 18세기 북학파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청과 왕래를 시작하면서 본격화하였다. 중국의 문물 유입으로 일부 북학파와 문인들



【그림 1】 은봉병, 조선, 헌종효현왕후 가례도감의궤 (하)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초의선사 동다송 등)에 의해 차는 향유하는 새로운 기호품으로써 조선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영조 3년 (1727) 승정원일기에 이러한 차 문화의 유행에 대한 짐작이 가능한 기록으로써 『연향의궤』에 주자(酒子)가 등장한다(【그림 1】 참조). 이것은 음다 문화의 발달로 차와 다구(茶具)가 전문화되어 생긴 변화로 기인된 것이며 그림과 같이 은다관의 주전자

3) 조선 중기 및 후기의 접빈다례는 인조 때는 ‘迎勅書禮畢後 仁政殿茶禮儀’라는 명칭으로 정조 때는 ‘下馬茶禮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의례 부분을 차지한다. 최준수, 「朝鮮 後期 茶文化와 白磁 茶具 研究」,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2018, p.12.

가 사용되었다고 추정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의 차 문화는 숭불억유정책으로 인한 쇠퇴에도 불구하고 왕실과 사찰, 문인들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특히 왕실의 의례에 의한 차 문화의 발전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북학파에 의한 차 문화의 연구에 있어서 중국의 차 문화가 끼친 영향 또한 분명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왕실의 의례에 의한 음다법의 정착과 조선통신사 등을 통한 중국과 일본의 차 문화의 소개는 조선의 차 문화 형성에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며 특히 차 도구 등의 제작에 있어서도 일정의 영향을 끼쳤다고 추정된다.

## 2. 중국의 음다법 및 다관의 특징

조선시대 차 문화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음다법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특히 차를 마시는 방법에 따라 다도(茶道)와 다구(茶具)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는 음다법에 대한 내용을 기준으로 제작된 중국의 다구 중 특히 다관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음다법에 따른 차를 마시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전다법(煎茶法), 점다법(點茶法), 포다법(泡茶法) 등이 있다.

전다법(煎茶法)은 단단한 병차를 끓여 조금의 소금을 첨가하여 마시는 방법으로서 당(唐)시대의 육우에 의해 고안되었다. 병차(餅茶)는 찻잎을 찌거나 압축한 것을 떡 “병”의 형태로 단단하게 말린 것을 말하며 전다법에서 가장 많이 애용되었던 차 종류이다. 즉 전다법의 중요한 특징은 가마솥이나 주전자에 차를 넣어 같이 끓인다는 점이기며 이에 따른 주전자는 금속제 또는 내열성재

료로 제작된 주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또는 병차를 덜어서 담을 수 있는 도기형 주전자들이었을 것이라 추정된다.(【표 1】 참조)

점다법(點茶法)은 덩어리의 고풍차를 가루로 만들어 다완<sup>4)</sup>에 넣고 그 위에 물을 부어 솔로 거품을 내어 마시는 방법으로서 이것은 오늘날의 말차 마시는 방법과 동일하다. 따라서 포다법의 차 도구에서는 다완의 형태와 크기 등에서 다양한 종류가 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다완에 적정량의 물을 부을 수 있는 주전자의 물대<sup>5)</sup> 등의 형태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된다.

포다법(泡茶法)은 주전자에 잎차를 우려내고 찻물을 내려 마시는 방법이기도 하다. 주전자, 다관, 다호, 다잔 등 다양한 차 도구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방식은 다른 음다법과 비교해 매우 간편함과 더불어 차의 향기를 즐길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포다법은 명대에 시작되어 청대에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며 조선의 음다법에 있어서도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음을 문헌 등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차를 마시는 방식의 변화에 따라 차 도구의 기능과 형태는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갔다고 볼 수 있으며 각 시대별로 유행한 음다법과 차 도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대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전다법이 유행하여 차를 솔이나 주전자에 끓여 마시는 방법으로 인하여 일부의 연구에서는 주전자의 형태가 솔의 형태와 유사한 둥근 형태의 대형주전자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표 1】 참조) 또한 당시 주전자의 기능이 차만이 아닌 술과 음료 등을 복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에 다관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분명 끓인 차를 분배하기 위한 기능 등이 포함된 형태로 제작됐다고 생각된다.

차 문화의 근원지인 중국에서는 송대에 차를 마시는 생활이 급속도로 전 지

4)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찻사발을 일컫는다.

5) 주전자의 몸체에 부착된 부위로 구멍에서 물이 나오는 하는 부분이다.

역에 퍼지게 되어 민간에서 차를 마시는 일은 다반사가 되었다. 차를 마시는 문화가 생겨나면서 이에 따라 차와 관련된 주전자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또한 차를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주전자의 형태가 변형되어 새로운 유형의 주전자가 나타나게 된다. 송대에는 병차를 가루 내어 뜨거운 물을 부어 교반하여 마시는 점다법이 유행하였기에 물의 절수가 중요하여 당대의 주전자보다는 물대의 길이가 길어지고 꺾여있는 모습이 보인다.

명대에는 포다법이 시작되어 차를 우려내는 주전자들이 개발되었으며 특히 차의 향을 가장 효율적으로 우려낼 수 있는 둥근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와 송대의 참외형 몸체의 주전자는 끓인 물의 보관이나 붓는 용도에 적합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이에 반해 명과 청의 주전자에서는 차의 투입과 제거에 편리하게 뚜껑의 형태가 커졌으며 이전의 주전자들과 달리 크기와 높이가 납작해진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포다법에 의한 주전자의 변형은 명대에서 청대까지 이르러 다양한 소재의 흙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사호(紫沙壺)와 오채자기(五彩磁器) 등의 다양한 주전자로 제작되었다.

【표 1】 중국의 다관 변천사

시대	전다법	점다법	포다법	포다법
유물 사진				
설명	청자철화인물무늬주전자 당(唐)	백자주전자 송(宋)	Teapot 명(明) 1627	Teapot 청(淸) 1800-1850
	높이 19.6cm 지름 17.7cm	높이 16.4cm 지름 11.5cm	높이 14cm	높이 15.2cm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빅토리아앤드 알버트뮤지엄	빅토리아앤드 알버트뮤지엄

### 3. 조선의 회화에서 보이는 주전자

본 장에서는 조선시대 회화에서 나타나는 주전자들을 대상으로 형태와 기능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도화사 화원을 두어 어진과 풍속화를 그리게 하였는데 이러한 연유로 당시의 생활상을 반영한 풍속화는 차 문화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속화 중에서 차에 관한 그림이 주제이거나 부주제로 나오는 그림을 다화(茶畵)로 정의하여 부르도록 하며 차를 준비하는 아동을 다동(茶童)이라 칭하고자 한다.

조선 초기의 다화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중국풍의 풍경과 인물이 등장하나 이후에는 점차 조선의 풍경과 의상 등을 반영한 인물 등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이 풍속화 중에서도 다양한 다화가 그려짐으로써 당시 차를 애호하는 풍조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다화의 주전자와 관련된 부분만을 확대해서 보았을 때 찻물을 끓이는 원통형의 화로에 장작불을 지피는 형태가 주로 나온다.

다화 이외에 조선의 차 문화에 대한 자료로서 책거리를 들 수 있다. 물론 책거리에 나타나는 소재들은 대부분이 청과 조선의 귀한 고급품들이 주 대상이었기에 그림에 표현된 차 도구들이 당시에 직접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나 나름 당시의 차 문화에 대해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아래 【표 2】와 【표 3】은 풍속화와 책거리에서 보이는 차 도구를 중심으로 특히 주전자에 대한 특징을 정리하였다. 주전자의 형태는 손잡이 위치에 따라 상파형, 후파형, 횡파형으로 나누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 조선의 다화(부분)에서 나타나는 주전자 형태 고찰

	<p>다화에서 보이는 주전자는 상파형으로 몸체는 원통형의 사다리꼴 형태를 띤다. 재질은 놋쇠 주전자로 보이며 화로 옆에 찻잔과 잔 받침이 보인다.</p>
<p>유숙, &lt;수계도(修禊圖)&gt;, 지본담채, 개인소장, 조선후기</p>	<p>그림의 중앙에 후파형 주전자가 위치하며 동그란 형태 기존의 주전자들보다 물대가 두터워 보이며 손잡이가 주전자 뚜껑의 높이만큼 올라와 있다. 뚜껑의 손잡이가 동물의 형상을 띠고 있다.</p>
	<p>상파형 주전자로 물대가 몸체의 뚜껑 높이만큼 뻗어있다. 손잡이가 기존의 주전자들보다 일직선으로 높게 그려진 것이 특징이다.</p>
<p>김홍도, &lt;산수인물도&gt;, 국립중앙박물관, 18세기</p>	<p>그림에 보이는 주전자는 후파형으로서 앞서 보인 허련의 다구기명도의 주전자와 형태가 비슷해 보인다. 화로 옆의 탁상에 긴 받침 위에 여러 잔들이 놓여 있다.</p>
	<p>상파형 주전자로서 위의 김홍도 그림에 나온 주전자 손잡이와 같이 손잡이가 직선적으로 높이 올라와 있다. 몸체의 형체가 둥글고 낮은 형태이며 주전자의 뚜껑이 볼록하게 솟아있다.</p>
<p>이인문, &lt;선동전다도&gt;, 지본채색, 간송미술관, 17세기</p>	

	<p>다동이 들고 오는 주전자는 후파형 이다. 다동이 올리려는 탁상 위를 보면 주병이 놓여 있으며 술상이 있는 연희의 한 장면으로 보인다.</p>
<p>김준근, &lt;기산풍속화첩&gt;, 독일함부르크인류학박물관, 19세기</p>	
	<p>그림에서 보이는 주전자는 횡파형으로서 일반적인 다화에서 보이지 않는 손잡이의 형태이다.</p>
<p>이방운, &lt;파초선인도&gt;, 지본담채, 개인소장</p>	
	<p>화로 위의 주전자는 후파형 주전자로 물대가 꺾여 솟아있으며 뚜껑 주변에 조각이 새겨진 것으로 보인다.</p>
<p>김홍도, &lt;산수화&gt;, 국립중앙박물관</p>	
	<p>몸체가 원형이지만 납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주전자의 손잡이가 곡선형을 보인다. 물대는 일자로 뻗어있다. 탁상의 옆에 잔과 차를 덜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주전자가 그려져 있다.</p>
<p>이방운, &lt;파초제시도&gt;, 지본담채, 고려대학교박물관</p>	
	<p>물대 끝의 높이가 몸체의 끝부분에 맞춰 그려져 있다. 손잡이가 곡선형을 띠는 상파형이며 이전의 상파형들과 다르게 손잡이가 높지 않다.</p>
<p>이징, &lt;산수화&gt;, 국립중앙박물관, 16세기</p>	

【표 3】 조선의 책가도(부분)에서 나타나는 주전자 형태 고찰

	<p>횡과형 다관으로 주전자에 전체적으로 청색의 이미지가 있어 청화자기를 연상케하며 주전자 옆에 녹유장식의 찻잔이 있는 걸로 보아 찻 주전자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p>
<p>&lt;책걸이 민화 병풍&gt;, 조선, 국립중앙박물관</p>	
	<p>책가도 병풍 속 주전자는 상과형과 후과형의 손잡이가 한 몸체에 같이 붙어있는 형태이다. 주전자의 몸체는 굴곡을 주어 참외와 같은 과일의 형태를 띠고 있다. 장식으로는 소나무로 보이는 조각이 있으며 주전자의 뚜껑 손잡이는 비정형의 모습을 보인다.</p>
<p>&lt;책가도병풍&gt;, 조선, 국립중앙박물관</p>	
	<p>상과형 주전자로 몸체에 꽃 모양의 장식이 양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손잡이는 대나무의 형상을 띤다.</p>
<p>&lt;문방도병풍&gt;,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19-20세기</p>	
	<p>책가도에서 보이는 주전자는 상과형 주전자이며 재료의 소재는 백자로 보인다. 몸체에 벚꽃 같은 장식이 새겨 있으며 뚜껑의 주변으로는 기하학 문양이 띠를 두르고 있다.</p>
<p>&lt;책가도병풍&gt;, 조선, 국립중앙박물관</p>	
	<p>병풍 속 주전자는 상과형의 주전자로 조선 시대 주전자에서 보이는 각이진 사각형 손잡이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사각 모서리 부분에 약간의 굴곡이 보인다. 몸체에 바깥 굽과 높은 구연부가 특징이다.</p>
<p>&lt;책걸이 민화병풍&gt;, 조선, 국립중앙박물관</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화에서 보이는 대부분의 차도구는 화로에서 직접 끓이는 주전자의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주전자의 소재 역시 금속 또는 탕기로 사용되는 도기용 소재일 가능성이 높기에 조선에서 유행했던 포다법과의 관계를 유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책거리에 등장하는 주전자는 중국의 다관 변천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몸체가 둥글고 물대가 길지 않는 모습으로 보아 찻잎을 우려 마시는 포다법의 형식을 띠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책거리에서 등장하는 형태는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주전자 유물의 기형에서도 비슷한 특징들이 나타난다.

풍속화와 책거리에서 보이는 주전자의 흥미로운 특징으로는 상파형의 주전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횡파형과 후파형의 경우에는 책거리 그림 속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풍속화에서는 차를 마시는 행위와 차의 정신에 대한 사상이 그림으로 표현되고 있어 그림 속에서 주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 이에 따라 주전자도 간략화되어 그려져 있으며 단색의 수묵화로 제작되었기에 주전자에 대한 특징을 유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책가도에서는 사용정보다는 사물이 중심이 되어 그려졌다.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물이 섬세하게 표현된 책가도는 주전자의 소재가 도자기로 유추된다거나 당시 사용된 장식적인 측면으로 실제 유물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이상 풍속화와 책거리에서 나타나는 주전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주전자가 화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용도와 기능을 정확하게 유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만큼 조선시대에 차 문화가 성행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주전자가 사용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또한 주전자의 손잡이에서도 상파형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 4. 조선시대 다관의 유물 유형 분류

본 연구에서는 유물의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주전자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주전자는 몸체에 뚜껑과 물대, 손잡이로 이루어진 용기로 주로 술이나 차를 데우거나 담아서 따르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sup>6)</sup>

주전자 유형 분류의 기준은 몸체에 부착되어있는 손잡이의 위치에 따라 상과형, 후과형, 횡과형으로 나누었다. 몸체의 위로 등글게 부착된 손잡이는 상과형, 몸체에서 물대의 반대편에 고리 형식으로 부착되어있는 손잡이는 후과형, 몸체 옆면에 원통형의 손잡이가 물대와 가까이 붙어있는 형태를 횡과형으로 분류하였다.

국립고궁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주전자의 대부분은 제작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청화 장식의 패턴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책가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상과형 주전자 들은 형태와 기능면으로 볼 때 포다법에 적합한 주전자라고 생각되며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제작된 조선의 주전자들은 포다법을 전제로 제작되었다고 추정된다.

### 1) 상과형

조선시대 유물 중에서 제일 많이 남아있는 자료는 몸체의 위쪽에 손잡이가 달린 상과형 주전자이다. 상과형 주전자는 도자기 외에도 금속 재질의 주전자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형태이다. 조선시대 다화에서도 주로 상과형 주전자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실제로도 조선시대에 상과형 주전자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

6) 국립국어원, <https://www.korean.go.kr>

【표 4】 조선시대 주전자 유형 상파형

상파형					
원구형					
	백자주전자 15-16세기 초	주전자 17-18세기	주전자 1800-1870	백자양각덩쿨문주자	백자청화화초문주자
	높이 17.8cm 밑지름 9cm	높이 18.4cm 지름 15.2cm	높이 17.8cm 지름 15.5cm	높이 22.1cm 지름 17.1cm	높이 13.2cm 몸통 15cm
국립고궁박물관	빅토리아앤드 알버트뮤지엄	빅토리아앤드 알버트뮤지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원통형					
	백자청재유개주자	백자주자	백자청화국화문 주전자	백자청화매화국화 무늬주자	백자청화천도문주자
			높이 19cm 바닥지름 8cm	높이 18.3cm 지름 12.1cm	높이 17.9cm 바닥지름 9.9cm
아모레퍼시픽	서울역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각 주전자마다 정확한 제작년도를 알 수는 없었으나 제작기록이 남아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보자면 조선초기에서 후기로 넘어갈수록 표현 장식에 있어서 흑유를 사용하거나 청화 장식 패턴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상파형 유물들은 크게 원구의 형태와 원통형의 형태의 몸체를 가진 주전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표 4】에서 원구형과 원통형으로 나누어 유물을 정리하였다. 상파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몸체 위에 다른 소재의 손잡이를 걸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어 타 소재와의 결합이 가능했던 점

을 알 수 있다.

원구형 주전자의 대부분은 몸체의 아랫부분에 중심이 있는 안정적인 형태이며 굽이 밖으로 보이지 않는 안쪽 굽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또한 주전자 뚜껑의 손잡이는 과일처럼 꺾여있는 형태가 많이 보이며 장식으로는 청화 장식을 넣거나, 넝쿨 또는 대나무 마디의 형상 등이 보인다.

원통형의 주전자는 몸체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풍만해지는 둥근 어깨를 가지고 있으며 몸체의 굽이 원구형 주전자와 같이 안쪽 굽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원구형 주전자의 손잡이는 대체적으로 각이 없는 둥근 형태가 많이 보였으나 원통형의 경우에는 손잡이의 형태가 각이 진 곡선으로 제작된 경우가 많았다. 물대의 특징으로는 원통형의 주전자에서 주로 사각으로 면이 깎여있는 경우가 많았다.

상과형 주전자는 높이가 주로 17cm 이상 되는 것으로 보아 크기와 용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2) 후과형

상과형 주전자 다음으로 자료가 많이 남아있는 주전자는 후과형 주전자이며 앞서 살펴본 다화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후과형 주전자는 물대의 반대편에 고리 모양의 손잡이가 달려있어 손가락을 끼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표 5】의 주전자 중에서는 뚜껑이 없는 형태의 주전자들이 보이는데 원래 없었는지 또는 소실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표 5】 조선시대 주전자 유물 유형 후파형

후파형					
물방울형					
	백자주자 15세기	큰물병 1800-1900	백자은구약주자 조선후기	백자주자	백자주진자
	높이 32.9cm 지름 11.4cm	높이 30cm 지름 20cm		높이 28.9cm 몸통지름 18.6cm	높이 19.5cm 몸통지름 15.3cm
	호림박물관	빅토리아앤드 알버트뮤지엄	한독의약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기타					
	백자청화칠보문 주자	백자청화백물문 주자	백자청화양가 매화문주자	백자청채음각 국화문주자	백자청화십장생 무늬주자
	높이 8.8cm 몸통지름 11.2cm	높이 8.9cm 바닥지름 5.9cm	높이 9.3cm 몸통지름 9.7cm	높이 12.3cm 지름 9cm	높이 32.3cm 지름 37cm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몸체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주전자 뚜껑 입구로 올라갈수록 좁고 긴 목을 가진 물방울 모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상파형 주전자에서 주로 나타났던 원구형, 원통형 등도 보인다.

이 외에 독특한 형태를 가진 몸체로 <백자청화칠보문주자>와 <백자청화백물문주자>가 있는데 몸체를 보면 사발 두 개를 위 아래로 합쳐놓은 듯이 보인다. 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몸체의 높이가 낮고 넓은 형태이며 바

끝 굽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몸체의 손잡이 경우 독특한 후파형 손잡이의 모습을 보인다.

물방울형의 몸체를 가진 후파형 주전자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주전자의 뚜껑이 블록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몸체의 길이에 맞추어 물대는 길고 얇게 곡선을 그리며 뻗어있는 것이 확인된다. 물방울형의 주전자는 보통 18cm를 시작으로 32.9cm까지 상파형과 횡파형에 비해 매우 큰 크기로 제작된 것이 특징이다.

### 3) 횡파형

횡파형 주전자는 나팔 모양의 원기둥 손잡이나 네모난 판 모양의 손잡이가 몸체의 물대와 가깝게 부착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손가락을 손잡이에 걸어서 드는 후파형과는 달리 손잡이 전체를 감싸 잡는 모양이다.

조선시대 횡파형 주전자의 경우 남아있는 유물이 타 유형의 주전자에 비해 적었으며 제작년도 또한 불분명한 것이 많다. 일부의 연구에서는 횡파형 주전자가 조선에서 19세기 이전에 발견된 바가 없어 일본의 에도시대 18세기 후반에 본격 생산된 규스(急須)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sup>7)</sup>

횡파형 주전자의 몸체는 다소 납작한 원형의 모습을 보이며 상파형과 후파형의 주전자와 달리 짧은 물대를 가지고 있으며 면을 깎은 물대가 보인다.

【표 6】의 횡파형주전자의 형태적 특징은 책가도에서 등장하는 횡파형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게 보인다.

---

7) 일본에서 이러한 다관을 ‘규스(急須)’로 부른다. 방병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세기 백자 횡수형 다관의 조형」, 미술자료, 2014, p.34.

【표 6】 조선시대 주전자 유물 유형 횡파형

횡파형					
낮은 원형					
	백자주전자 19세기	백자양각매화 무늬주전자	오지주전자	백자청화모란문 주자	청자수주
	높이 10.2cm 바닥지름 6cm				높이 11.4cm 바닥지름 8.7cm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조선향토대백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 5. 조선시대 주전자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



【그림 2】 청화백자망우대잔받침,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시대 유물 중 ‘청화 백자 망우대 잔받침’은 중앙에 망우대(忘憂臺)라는 한자가 쓰여있다. 차 한 잔에도 근심을 잊으려던 선조들의 마음이 담긴 망우대 잔받침에서 볼 수 있듯이 차는 인간의 정신적 세계를 유지하고 삶을 이어나가는 활력소라고 할 수 있으며 차도구 또한 이러한 세계를 반영하듯 나름의 조형적 미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망우대 잔받침을 근간으로 차 도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새로운 조형성과 기능성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조선시대의 다관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을 주목하였다.

주전자는 차도구 중에서 차를 우리고 따라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에 각 기능에 부합하는 최적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전자의 각 부분은 독특한 형상과 미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유의 조형미로 인해 감상용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에 오래전부터 실내의 장식용품으로서의 역할도 겸해왔다. 이처럼 주전자는 기능성은 물론 감상용으로써의 가치를 모두 가지고 있으며 조선백자의 주전자도 그 한 예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주전자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을 ‘무작위의 선’과 ‘최소한의 조형’, ‘단색조의 색채’로 정의하고 다관 제작의 조형적 표현에 있어 기준으로 삼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무작위의 선

우리의 선조들은 예로부터 자연환경에서 영감을 받으며 자연을 벗 삼아 살아 가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적 특징으로는 크고 작게 굴곡진 산들이다. 뾰족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굴곡을 지닌 자연의 선은 우리의 미의식에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 굴곡은 사전적 의미로 ‘이리저리 굽어 꺾여있음’을 말한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잘되거나 잘되지 않는 일이 나타날 때 ‘굴곡진 인생’이라는 말로 인생을 선(線)에 비유하여 표현한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 언어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연결지어 무수한 선의 이미지로 표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자연은 우리 고유의 선에 대한 추상적 개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선 또한 인간의 인위적이고 작위적인 것이 아닌 ‘무작위의 선’으로서 형상화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무작위의 선은 조선의 달항아리에서 제일 잘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과장된 비율이 있다거나 딱 떨어지는 외형의 완벽함보다는 여유롭고 넉넉하여 좌우가 대칭을 이루지는 않지만 균형감이 느껴진다.

무작위에 의한 선의 표현은 인간의 마음을 포근하게 할 수 있는 ‘여유’나 ‘안정’ 등의 느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전자의 기형제작에 있어 물레성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3】 백자주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이것은 앞서 기술하였듯이 무작위의 선을 표현하는데 있어 매우 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주전자를 보면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가 날카롭거나 기물의 외형적 선에서 화려한 기교가 담긴 형태들은 드물다. 또한 주전자의 무게 중심이 과하지 않게 밑부분으로 이어져 안정감을 준다. 이러한 풍부한 양감과 견고한 외곽선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무작위의 선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레를 이용함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며 의도하지 않은 자연의식에서 형성된 조형의 선을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조선시대 주전자에서 보이는 조형성을 새로운 미감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라 생각한다.

## 2) 최소한의 조형

조선시대 연적(硯滴)은 과거 문인들의 애장품이었다. 연적은 벼루에 먹을 갈기 위해 사용하는 물을 담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물건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기형 및 문양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적은 주로 자연과 관련된 소재가 많았다. 이러한 점은 조선 후기에는 사대부 문인 사이에 향을 피우고 차를 마시며 서화를 즐기고 골동품을 수집하는 문화에서 보이듯 자연을 곁에 축소시켜 함께하고자 했던 소장의 의미로 보인다.

과거에 비해 현대의 공간 또한 점점 축소되어가는 경향이 있으며 현대인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역시 미니멀하게 변해 간다고 할 수 있다.

공간이 축소됨에 따라 불필요한 기능들은 제외하고 최소한의 실용미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기물에서도 나타난다. 조선백자의 경우 장식성이 과하지 않으며 표면을 가득 채우지 않았다. 또한 단순하고 간략화된 표현과 여백을 추구했다. 조선백자의 기술적 영향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크거나 화려한 도자기보다는 작고 간결하며 소박한 느낌의 도자기에서 조선백자의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백자에서 보이는 ‘절제’와 ‘생략’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고자 ‘최소한의 조형’이라는 구체적인 언어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미감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방법으로써 축소, 생략, 간략화를 시도하였으며 실제 주전자의 제작에 있어서도 형태의 간략화는 물론 미니어처와 같은 크기의 축소를 통해 더욱 이러한 미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3) 단색조의 색채

조선백자는 시대별로 구분이 가능하다. 15세기는 유백색, 16세기는 설백색, 17세기의 백자는 회백색, 18세기 이후의 백자에서는 푸른 기가 도는 청백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백자는 시대별로 다양한 흰색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백자의 표면 장식은 번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혼합된 산화물이 얼룩과 철점으로 표면에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장식적 특징과 시대적으로 변화한 색상을 바탕으로 조선백자의 색은 티 없이 깨끗한 순백의 흰색이 아닌, 흰색이라는 범주 안에 다양한 색이 공존하는 하나의 백색이라고 보았다.

백색 이외의 표면 장식에 있어서는 코발트 안료로 무늬를 그린 청화 장식과 철사 안료에 의한 철유 장식이 있다. 이와같이 청화와 철유는 자연에서 나온 산화물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운 터치가 남음으로써 백자의 바탕 위에 인위적이지 않은 답답한 색채가 더욱 돋보인다.



【그림 4】 김근태, <담론(부분)>, 2018,  
Mixed media on canvas

이러한 조선백자의 표면 장식적 특징을 단색화의 표면 장식 기법과 비슷한 양상으로 보았다. 김근태의 단색화를 보면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색상은 하얀색이다. 하지만 백색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색의 물감

이 켜켜히 쌓여 하나의 백색으로 나타나며, 흰색 사이사이 보이는 황토색의 질은 바탕색과 거뭇한 돌가루가 보인다. 김근태의 단색화는 과시하지 않고 은근히 배어나는 미색으로 꾸밈없는 조선백자의 빛깔을 연상시킨다. 이러한 미감은 작위와 기교를 일제히 배제하고 자연스러움에 집중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의미를 보여준다.

백자라는 색의 범주 안에서 보이는 다양한 백색이 수많은 색이 쌓여 하나의 바탕색을 만들어내는 단색화의 특징과 닮아있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색조의 미감을 작업에 적용시키기 위해 청백색, 옥백색, 설백색 등의 다양한 백색 유약을 사용하였다. 또한 조선시대 백자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질감을 살리기 위하여 유약에 철을 이용한 발색을 적용하여 단색조의 색채를 표현하였다.

조선백자 역시 이러한 단색조의 미감이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일체의 작위와 기교를 배제시켜 자연스러움에 집중하고자 했던 내재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리의 무던한 색채와 자연의 질감을 그대로 남기고자 했던 모습을 ‘단색조의 색채’로 정의하였다.

## 6. 제작과정

### 1) 주전자 몸체 제작과정




조선시대 백자는 회전을 통한 물성을 이용해 물레성형을 주로 사용하였다. 조선백자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운 곡선의 미는 이러한 인간과 도구의 조화 속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선이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본론에서 도출한 조선백자의 형과 단색조의 미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주전자의 형태를 간략화와 생략이라는 방법으로 새로운 미감의 형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몸체는 물레성형으로 제작하며 조선백자의 형상적인 특징에 착안하여 안정감 있는 곡선의 형태와 양감을 얻을 수 있는 형상을 제작하였다. 특히 주전자의 외형에 나타나는 곡선의 무게중심에 따라 양감이 변화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볼륨에 따른 주전자의 외형곡선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주전자의 곡선의 형상은 물레로 제작하였으며 디자인에 따라 면치기에 의한 다면체 주전자로 제작하기도 하였다. 이외에 과일 외형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를 참고하여 주전자의 형태제작에 활용하였으며 몸체와 뚜껑은 제작 과정 시 물레를 사용하였으며 뚜껑의 손잡이는 과일의 꼭지의 형태를 띠는 비정형의 모습으로 제작하였다.

물대와 손잡이는 형태적인 미감과 작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석고 캐스팅 기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상파형과 후파형 주전자의 경우 물대와 손잡이를 석고 캐스팅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횡파형 주전자의 손잡이 경우 물레성형으로 제작하였다. 경우에 따라 상파형 주전자의 손잡이 부분을 금속 소재로 사용하여 기능성을 보완하고 조형적 미감을 더하고자 하였다.

## 2) 석고캐스팅 기법

【표 7】 석고 몰드 제작 과정

제작 과정			
설명	<p>몸체의 형태와 어울리는 주구와 손잡이를 비례에 맞게 디자인하여 석고로 원형을 제작한다.</p>	<p>제작된 원형에 카리비누를 칠해 막을 형성하고 원형을 반으로 나누어 흙담을 쌓아 석고를 부어 틀을 완성한다.</p>	<p>완성된 틀을 분리하고 주입구를 조각하여 건조한다.</p>

물레성형이 가능하지 않은 물대와 손잡이 모양의 경우 석고 작업으로 진행하였다. 손잡이 두께의 석고판 위에 원하는 손잡이의 모양을 그리고 조각도를 이용하여 조각한 후 몰드를 제작하였다.(【표 7】 참조)

## 3) 장식방법

### (1) 면치기 및 조각에 의한 표면장식

원형의 주전자에 일정한 면적의 면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나타나는 경계의 경쾌한 직선을 얻고자 면치기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다면체형태를 제작하기 위해 우선 물레성형 후 굽을 깎은 다음 적당히 건조된 기물에 연필로 원하는 수의 각을 세로로 긋는다. 이후 굽칼을 이용하여 면을 깎아내어 다면체의 형태를 얻거나 또는 그어진 선 부분을 파냄으로써 참외 형태와 같은 느낌으로 제작하였다.

(2) 유약

조선시대 유약은 다른 시대에 비해 약간의 회청색을 띤다. 이것은 조선시대 때 재유를 사용했던 재료적 특징과 원료의 정제과정이 충실하지 못해 철분 성분이 걸러지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시대적 색깔을 살리기 위하여 기존의 유약에 철로 발색을 주어 하얀 매트유와 푸른 투명유, 철유를 사용하여 표면을 장식하였다.

4) 금속 손잡이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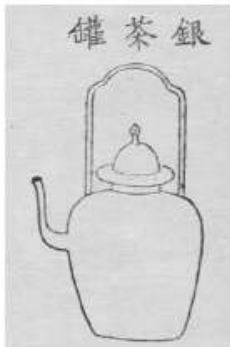
상과형 주전자의 손잡이 제작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타 재료와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소재로는 은과 황동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조선백자의 단색미와 조화를 잘 이룰 수 있는 소재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금속 손잡이를 주전자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주전자의 몸체에 고리 부분이 필요한데 고리의 내경 지름을 기준으로 손잡이의 크기와 두께를 결정하여 제작하였다.

【표 8】 금속 손잡이 제작 방법

제작과정						
설명	일리스트로 손잡이 형태 그려 작업할 판에 붙인다.	그림대로 톱질한다.	손잡이 테두리를 줄질로 마감처리한다.	사포질로 표면 마감처리한다.	망치로 손잡이 형태를 잡아 준다.	완성

## 7. 시작품



【그림 5】 은다관,  
조선, 진찬의궤



### 【작품 1】 물 끓는 소리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환원소성

주전자 85x65x125, 차통  $\varnothing$ 55x70 mm

【그림 5】는 조선 왕실의 의례(儀禮) 시 사용된 주전자로 진찬의궤 기록으로 남아있는 그림이다. 진찬의궤에 기록된 은다관은 상과형의 손잡이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굴곡이 확인되며 몸체는 원통형을 띤다. 본 작품의 제작은 위로 올라올수록 풍만한 어깨 형태를 띠는 원통형의 몸체로 제작하였으며 굴곡진 손잡이와 직선으로 뻗어있는 물대를 제작하여 몸체에 접합시켰다. 그림에서 보이는 주전자 뚜껑의 복잡한 형태는 단순화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은의 깨끗한 표면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설백색의 매트 유약을 사용하였다.



【그림 6】 백자주전자,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 【 작품 2 】 새벽 1시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환원소성

주전자 120x95x130, 잔  $\varnothing$ 55x40, 잔받침  $\varnothing$ 70x15, 화병  $\varnothing$ 70x150 mm

【그림 6】에서 보이는 백자 주전자는 상과형 주전자 유형으로 분류되며 몸체는 둥글고 풍만한 원구형의 형태를 보인다. 또한 과일의 꼭지를 닮은 비정형의 뚜껑 손잡이가 특징이다. 본 작품 제작에 있어서 이러한 특징적인 면을 살려 상과형의 손잡이를 제작하고 몸체는 둥글고 무게감이 안정적인 형태로 성형하였으며 주전자 뚜껑에서 변화 있는 곡선의 경쾌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찾상을 연출하기 위해 화병과 잔을 추가하여 구성하였으며 주전자의 풍만한 외형적 선과 어울리게 찻잔과 화병의 무게중심을 아래에 두어 제작하였다. 기물의 유약은 유물 사진을 바탕으로 푸른 기가 도는 푸른 투명유를 사용하여 시유하였다.



【그림 7】  
백자청개유개주자,  
조선, 아모레퍼시픽



### 【 작품 3 】 화단의 나뭇가지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철유, 환원소성

주전자 75x60x130, 받침  $\varnothing$ 110x20, 차통  $\varnothing$ 50x70, 화병  $\varnothing$ 50x75 mm

【그림 7】에서 보이는 백자주자의 특징은 상과형의 주전자로 금속 소재를 손잡이에 사용했다. 또한 원통형의 몸체를 가지며 주전자의 뚜껑은 손잡이의 소재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본 작업에서는 금속 손잡이와 결합이 가능하게 몸체에 고리를 만들어 제작하였다. 몸체와 뚜껑의 재질이 다른 점을 참고하여 몸체는 하얀 매트유, 뚜껑은 철유로 시유하였으며 주전자 형태의 특징을 차통에도 적용시켜보았다.



#### 【 작품 4 】 메모장

백자토, 물레성형, 면치기, 투명유, 매트유, 환원소성

주전자 75x60x130, 차통 Ø50x70, 숙우 70x58x120, 받침 Ø50x6 mm

【그림 7】의 백자주자는 상과형의 금속 손잡이와 뚜껑과 몸체가 각각 다른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작품 3】을 응용하여 주전자와 차호, 차시 받침에 면치기 기법을 적용시키고 몸체에 철유를 사용하여 면을 강조할 수 있게 표현하였다. 철유가 가지는 따뜻한 느낌에 어울리는 황동을 사용하여 주전자와 숙우의 손잡이를 제작하고 차호에 어울리는 차시를 제작하여 전체적인 색감을 맞추었다.



【그림 8】 은다관,  
조선, 진찬의궤



### 【 작품 5 】 사진첩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환원소성

주전자 90x70x120 mm

【그림 8】의 주전자는 곡선형의 상파형 손잡이와 원구형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작품 제작에 적용시켜 전체적으로 곡선적인 느낌을 살려 작업하였다. 은 손잡이와 주전자의 뚜껑, 물대를 곡선의 연장처럼 보이도록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은 소재와 어울릴 수 있는 설백색의 유약을 사용하여 시유하였다.



**【 작품 6 】 현관문 열쇠**

백자토, 물레성형, 녹유, 산화소성

주전자 85x65x120 mm

주전자 몸체는 전체적으로 둥근 원구의 형태로 제작하였으며 몸체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주전자 뚜껑을 크게 제작하여 뚜껑을 여닫기에 용이하도록 제작하였다. 주전자의 손잡이는 황동을 사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와 어울리게 노란 기가 도는 유약을 사용하여 시유하였다.



【그림 9】 백자주자,  
조선, 호림박물관



【그림 10】 은제주전자,  
조선, 국립고궁박물관



### 【 작품 7 】 초여름 집 앞의 장미 넝쿨

백자토, 물레성형, 반매트유, 환원소성

주전자 100x70x105, 잔  $\varnothing$ 60x40, 차통 85x65x65 mm

【그림 9】와 【그림 10】의 주전자는 바깥 굽이 있으며 몸체의 형태는 물방울 형태로 올라올수록 목이 길어지며 좁아지는 후파형 주전자이다. S자 곡선처럼 구부러진 물대와 과감하게 꺾인 후파형 손잡이가 특징이다.

본 작품 제작에 있어서는 이러한 몸체의 특징과 S자 물대, 과감하게 꺾인 후파형 손잡이를 다관에 적용하여보았다. 유물에서 나타나는 반매트한 표면의 특징을 작업에 적용시켜 백색의 반매트 유약을 사용하여 시유하였다.



【그림 11】 백자주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 작품 8 】 골목 사이사이

백자토, 물레성형, 투명유, 산화소성

주전자 95x70x125 mm

【그림 11】의 주전자는 기존의 주전자보다 긴 몸체와 길게 곡선을 그리며 뺨은 물대를 가졌다. 전체적인 형태는 주병과 흡사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제작에 있어서는 몸체가 올라올수록 어깨가 풍만한 볼륨감을 주었으며 참외 매병처럼 볼록하게 조각하여 조형적인 미감을 주었다. 유물의 사진을 참고하여 약간의 옥빛이 더해진 녹백색 유약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그림 12】 백자주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 작품 9 】 우연히 집어 든 시집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환원소성

주전자 75x60x85, 잔  $\varnothing$ 48x40, 잔받침  $\varnothing$ 70x13, 차통 55x60x65 mm

【그림 12】의 다관에서 보이듯이 주전자의 몸체는 좁은 굽에서 올라올수록 풍성한 어깨를 가지고 있다. 주전자 뚜껑과 만나는 몸체의 목부분이 살짝 길게 올라온 것이 특징이며 뚜껑의 손잡이는 작은 구슬을 올려놓은 모양이다.

작품 제작은 실용성을 위하여 손잡이의 크기를 늘렸으며 유물의 색과 질감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백색의 무광택유를 사용하였다. 주전자의 형태적인 특징을 적용시켜 손잡이가 달린 차통을 제작하였으며 좁은 굽에서 올라올수록 풍만한 몸체의 형태를 본 따 잔을 제작하였다.



**【그림 13】**  
백자양각매화무늬주전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 **【 작품 10 】 길목에서 올려다 본 하늘**

백자토, 물레성형, 반매트유, 환원소성

주전자 95x85x60, 잔  $\varnothing$ 52x55, 플레이트  $\varnothing$ 210x25, 차통  $\varnothing$ 55x55, 화병  $\varnothing$ 55x100 mm

**【그림 13】**의 백자 주전자에서 보이는 몸체의 형태는 원통형에 가까우며 물대에는 면이 쳐져 있으며 짧은 횡과형 손잡이의 형태가 보인다.

본 작품 제작에 있어서 다관의 손잡이는 실용성을 위해 횡과형 손잡이의 크기를 키웠다. 장식에 통일감을 주기 위해 플레이트와 차통에 면치기 기법을 적용하여 제작하였다. 찻잔과 차통, 화병은 원통형 몸체의 특징을 살려 제작하였다. 유약은 유물에서 보이는 푸른 유약을 사용하여 시유하였다.



【그림 14】  
오지주전자, 조선,  
향토대백과



### 【 작품 11 】 오래된 나무 책상

백자토, 물레성형, 철유, 환원소성

주전자 80x55x70, 잔  $\varnothing$ 43x40, 차호  $\varnothing$ 70x735, 차통  $\varnothing$ 55x53 mm

【그림 14】의 주전자는 둥그스름한 형태와 전체적으로 곡선적인 선으로 느껴진다. 이를 작품 제작에 적용시켜 사용시 안정감을 주기 위하여 손잡이를 유물의 형태보다 길게 만들었다. 주전자의 형태와 어울리는 차통과 차호, 찻잔으로 구성하였다. 강한 색감의 유물의 색상에 착안하여 철유를 시유하고 유약의 강한 색감에 찻잎의 색이나 또는 우려졌을 때 찻물의 색이 잘 보이기 위하여 차호와 찻잔을 이중 시유하여 안팎의 유약을 다르게 표현하였다.



【그림 15】  
백자청화매화  
국화무늬주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16】 백자주자,  
조선, 서울역사박물관



### 【 작품 12 】 버스 뒷자석

백자토, 물레성형, 매트유, 환원소성  
주전자(좌) 80x65x90, 주전자(우) 85x65x95 mm

【그림 15】 과 【그림 16】 의 주전자 형태는 상파형 주전자의 조형적 특징인 좁은 굽과 몸체의 어깨가 풍만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몸체에 적용시켰으며 손잡이와 물대는 약간 각진 형태로 제작하였다. 유물 사진의 표면적 질감에 착안하여 부분부분 산화철이 표면 질감으로 드러나는 유약을 사용하여 시유하였다.



【그림 17】  
백자청화칠보문주자,  
조선, 국립중앙박물관



【작품 13】 낮은 찻장 위의 바다

백자토, 물레성형, 청화, 매트유, 환원소성

주전자 130x80x70 mm

【그림 17】의 주전자에서 보이는 형태적 특징으로는 사발을 위아래로 합쳐 놓은 몸체의 형태와 독특한 손잡이가 돋보인다. 본 작품 제작에 있어서 몸체와 손잡이의 특징적인 형태를 적용시켰다. 유물에서 느껴지는 질감을 매트한 유약을 사용하여 표현하였고 청화를 둘러 은은하게 보이도록 제작하였다. 실용성을 더하기 위해 기존의 주전자 뚜껑의 손잡이보다 조금 높게 제작하였다.

### Ⅲ. 결 론

오늘날 우리의 차 문화는 근세의 암울한 시기를 거치며 그 원형에 대한 실체와 지금의 차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있어서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 최근의 차 문화는 젊은 층 소비자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음다문화로 발전하고 있기에 우리의 전통성을 반영한 음다법과 차 도구의 제시는 향후의 차 문화 발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차 문화의 정체성에 있어 그동안 차 문화의 쇠퇴기로만 기억되던 조선의 차 문화를 대상으로 문헌을 통한 고찰과 회화에 그려진 음다습관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차 문화는 중국 또는 일본과 같은 대중적인 양상보다는 왕실과 사찰 그리고 문인을 중심으로 하는 차 문화가 명맥을 이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국의 음다법과 이에 따른 변천사에 따르면 당시 중국에서 유행한 포다법은 조선의 음다법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문헌과 풍속화 등에 나타나는 포다법과 관련된 차 도구 등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음다법의 정착은 조선의 차 도구 제작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며 특히 조선백자의 주전자에서 보이는 형태적 특징은 포다법을 전제로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조선의 백자 다관의 특징을 분류할 때 가장 큰 요소로서 다관의 손잡이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유물을 상파형, 후파형, 횡파형으로 나누어 고찰한 결과 상파형 주전자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횡파형의 경우 일본 다관 '규스'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점 등을 미루어 조선의 차 문화는 일정 부분 동아시아 교류의 영향을 받아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조선의 차 문화를 반영한 다관은 조선백자 특유의 고유한 미감이

담겨 있기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선시대 백자다관의 조형적 특징을 ‘무작위의 선’, ‘최소한의 조형’, ‘단색조의 색채’로 정의하고 작품제작에 적용하였다.

이러한 미감의 정의를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조형 행위는 ‘절제’와 ‘생략’, ‘간략화’, ‘축소’ 등의 과정을 거쳐 주전자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특히 형상의 축소를 통한 절제미를 제시하기 위하여 미니어처와 같은 축약된 형태의 조형성을 확인하였다. 조선시대의 주전자의 크기를 절반으로 축소시켜 제작된 주전자는 이전보다 간소화된 차 문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소비층의 문화에 부응하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조선시대 주전자로 발전할만한 조형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 주전자에 초점을 맞추어 조형성의 도출과 이를 활용한 주전자 제작에 중점을 두었기에 일정 양식의 음다법에 필요한 차 도구의 세트 구성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 금후의 연구에서는 차통과 찻잔, 화병 등의 일체로 구성된 다기 세트 조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김영기,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1991
- 김동현, 《茶器 · 작은 공간의 미학》, 차와 사람, 2008
- 방병선, 《순백으로 빚어낸 조선의 마음》, 돌베개, 2002

### <학위논문>

- 김재섭, 「朝鮮時代 茶 生産과 消費에 관한 考察」,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09
- 김재임, 「朝鮮時代 茶書에 나타난 茶文化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1
- 김효은, 「한국 차(茶)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화 방안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논문, 2008
- 이은정, 「朝鮮後期 茶書를 통해 본 茶生活 研究」, 원광대학교 박사논문, 2013
- 최성지, 「조선후기 백자 주자(注子)의 발달배경과 양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6
- 최준수, 「朝鮮 後期 茶文化과 白磁 茶具 研究」,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2018
- 하경일, 「조선시대의 횡과형 다관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2019

<학술논문>

- 강웅기, 「조선시대 주전자의 조형적 특징 분석 - 유물의 형태를 중심으로 -」, 『기초조형학연구』, Vol.16 No.6, 2015
- 김창배, 「회화 속에 나타난 차(茶) 그림 연구」, 『차문화·산업학』, Vol.35 No.- 2017
- 고연미, 「韓 · 日 煎茶圖에 나타난 茶文化 比較研究 : 조선시대와 에도 시대를 중심으로」, 『차문화·산업학』, Vol.3 No.2, 2007
- 방병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세기 백자 橫手形 茶罐의 祖形」, 『미술자료』, Vol.- No.85, 2014

<웹사이트>

-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go.kr>)
- 국립고궁박물관 (<https://www.gogung.go.kr>)
-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 호림박물관 (<https://www.horimmuseum.org>)
- e뮤지엄 (<https://www.emuseum.go.kr>)
- Victoria and Albert Museum (<https://www.vam.ac.uk>)

# ABSTRACT

##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White Porcelain Teapot Using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a Pot from the Joseon Dynasty**

Son Seeun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Dagwan refers to a teapot, which describes a bowl made of porcelain, brass and silver. Elegant tea coffins were crea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s the aristocrats valued the importance of formality in various tea ceremonies, diplomatic events, and traditional ritual.

The importance of formality in various tea ceremonies, diplomatic events, and traditional rituals valued by the aristocrats of the Joseon Dynasty has paved the way for the creation of elegant tea coffins. Dagwan was treated as a very important element in tea tools, and due to its various materials and formality, it holds a unique aesthetic sense of formality.

In the main subject of the study, it focuses on the cultural aspects of tea during the Joseon Dynasty, including the cultures of temples, royal families, and literary men, and outlined the process of the transformation of

teapots and the tea brewing methods in China, which shared the similar world view at the time. Furthermore, it focused on the usability and practicality of teapots based on the paintings and the books of the teapots during the Joseon Dynasty which are showing the historical aspects of tea culture.

The study charted the teapots made of white porcelain from the Joseon Dynasty by the locations of the handles, and also described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Furthermore, the study listed the key words for each formative characteristic of teapots. This information was leveraged to create white porcelain teapot with a formative aesthetic .

The study suggests new tea tools that are appealing to the younger generations who have recently emerged as a new consumer of tea culture by leveraging the newly created white porcelain teapot and matching it with other tea tools.